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운영 방안 연구\*

- 김해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Opening Hours of Public Libraries According to the 52-hour Working Week: Focused on Gimhae Municipal Library

김 수 경 (Soo-Kyoung Kim)\*\*

이 태 안 (Tae-An Lee)\*\*\*

이 운 우 (Woon-Woo Lee)\*\*\*\*

### 목 차

- |                  |                           |
|------------------|---------------------------|
| 1. 서 론           | 4. 김해시립도서관 운영 개선을 위한 요구조사 |
| 2. 이론적 배경        | 5. 김해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운영 개선 방안  |
| 3. 김해시립도서관 운영 현황 | 6. 결론 및 제언                |

### 초 록

연구의 목적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주52시간 근무에 따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은 6개 김해시립도서관이며, 연구내용은 김해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김해시립도서관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FGI 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김해시립도서관의 휴관일과 개관시간의 운영안을 2가지로 제시하였다. 향후 일과 삶의 균형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시민의 문화복지와 직원의 근로복지 간의 균형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rational operation plan for opening hours of public libraries in accordance with the 52-hour workweek of public institution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six Gimhae Municipal Librarie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Gimhae Municipal Library,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library users and staff. As a result, two proposals were made for the closed days and opening hours of the Gimhae Municipal Library. In order to balance work and life and to operate an efficient library,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cultural welfare of the citizens and the welfare of employees.

키워드: 공공도서관, 주52시간 근무제, 김해시립도서관, 휴관일, 개관시간, 문화복지, 근로복지  
Public Library, 52 Hours a Week, Gimhae Municipal Library, Closure Day, Opening Time, Cultural Welfare, Work Welfare

\* 이 논문은 2018년 김해시의 『김해시립도서관 조직 진단 및 운영 개선 방안 연구』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임.

\*\* 창원문성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ksk2012@cmu.ac.kr / ISNI 0000 0004 6432 1137) (제1저자)

\*\*\* 창원문성대학교 국방물자과 조교수(talee@cmu.ac.kr / ISNI 0000 0004 6814 4326) (교신저자)

\*\*\*\* 창원문성대학교 문헌정보과 겸임교수(cloudrain95@naver.com / ISNI 0000 0004 7594 4647)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19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9년 8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8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185-213, 2019.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3.185]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상남도 김해시는 2007년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독서·도서관 전담부서인 ‘도서관정책팀’을 신설하여 ‘책 읽는 도시 김해’ 정책과 독서문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도서관과 독서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고, 2018년에는 ‘제5회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김해시에는 2007년 당시 2개 시립도서관(칠암, 장유)과 2개 교육청소속 도서관(김해, 진영)이 있었으나 2018년 현재 김해시립도서관은 6개소(칠암, 장유, 화정글샘, 진영한빛, 기적, 율하)로 늘어났다. 작은도서관도 7개소에서 57개소로 늘어났고, 101만권의 장서를 구비하여 통합도서관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여 ‘책두레 서비스’(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해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에서 원하는 도서관의 모든 책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김해시는 대한민국 대표 독서문화도시로 발돋움하여 전국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 정책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로서 도서관정책 조직은 2007년에는 ‘도서관정책팀’으로 출발하였으나, 2010년에는 ‘평생학습지원과’를 개편하여 ‘도서관사업소’로 조직되었고, 이후 2014년에는 ‘평생교육사업소’로, 2017년에는 교육지원 분야가 중심이 되는 ‘인재육성사업소’로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 영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김해시의 시립도서관

과 작은도서관은 계속 증설되어 도서관 관련 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책의 수도로서 면모를 갖추어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 수도’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서관 정책 및 도서관 운영 실태를 진단하여 도서관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공공도서관의 인력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김해시립도서관 사례를 통해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합리적 개관시간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52시간 근무제가 1년 정도 시행된 상황이라 아직 52시간 근무에 따른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어 요구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FGI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요구 충족과 직원들의 근로복지 충족 사이의 절충점을 찾고자 한다.

### 1.2 연구 대상 및 내용과 방법

연구의 대상은 김해시립 6개 공공도서관, 즉 칠암, 장유, 화정글샘, 진영한빛, 김해기적, 율하 도서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김해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서관 이용자 및 도서관직원의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김해시립도서관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FGI 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김해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김해시립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와 직원들의 요구조사 설문 문항과 FGI 면담을 위한 항목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서관 개관시간 해외사례와 김해시와 유사한 역할을 가진 국내 유사 도서관 개관시간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다.

셋째, 김해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김해시립도서관 이용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개관시간과 도서관 운영 발전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이용자와 직원에 대한 요구조사와 FGI(초점집단면담)조사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여 도서관 개관시간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 1.3 선행연구

본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공공도서관 운영 개선을 위한 요구조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의 합리적 조정, 공공기관 52시간 노동에 따른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곽동철(2005)은 도서관에서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대응 전략을 고찰하였다. 사서, 이용자, 일반국민에 대한 의식조사 등을 수행한 연구가 아닌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 분석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추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둘째,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공공도서관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어떻게 도서관을 경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각각 시행중인 도서관 경영 실태를 분석하였고, 넷째, 향후 정부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에 대비하여 문화기반시설로서 공공도서관에서의 주 40시간 근무제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다.

한상일 외(2008)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이 이용고객에 대한 만족도와 방문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둔 성공사례로 인식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연장개관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간대별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에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수준이 고객의 만족감은 높일지라도 방문회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서비스 품질이 높다고 인식하는 이용자는 만족감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2009)는 주 5일제와 토요일휴무 등 국민들의 생활시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개관시간 운영과정에서 내재하는 인력 및 시설운영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개관시간 운영실태, 개관시간 연장사업, 개관시간 근무실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

곽동철 외(2012)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 시기에 새로 공공도서관을 개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서직 공무원 정원 변화를 분석하였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공공도서관을 2개관 이상 개관한 전국의 15개 기초자치단

체를 선정하여,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과 사서직 정원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해당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 시기에 조사대상의 15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증가하였으나, 사서직 정원의 증가는 극히 미약하였다. 또한 복수직렬을 이용하여 행정직원 수를 증가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사서직 정원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장덕현, 강은영(2012)은 부산시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요구와 이용 행태, 그리고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공공도서관을 중요한 교육문화시설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도서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또는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공공도서관을 일상생활과 밀착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시민들이 많았다. 아울러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시민들도 매우 많았으며,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약 37%가 도보로 도서관을 방문하고 77%가 30분 이내의 위치에 공공도서관이 있다고 답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건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비이용자들의 3분의 2 가량이 가깝고 편리한 위치에 도서관이 있다면 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윤희운(2013)은 국제기구(IFLA/UNESCO)와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과 대만, 일본, 한국)의 공공도서관기준을

대상으로 최소 개관시간을 분석하고 봉사대상 인구에 기초하여 국내 공공도서관 자료실의 바람직한 주당 최소개관시간 기준(1만명 미만은 45시간, 1만명~2만명 미만은 50시간, 2만명~5만명 미만은 55시간, 5만명~10만명 미만은 60시간, 10만명~30만명 미만은 65시간, 30만명 이상은 70시간)을 제안하였다.

박윤정(2013)은 마산, 창원, 진해에 소재한 교육청 산하 및 시립 8군데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야간 이용실태,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에 대해 이용자의 인식이 높으며, 둘째, 야간연장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직장인 등 주간 이용이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서'였고, 야간연장 운영이 공공도서관의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셋째,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서 우선 야간연장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야간연장 시간의 적절성'이 가장 높은 반면, '도서관 위치의 편리성과 접근용이성'이나 '직원들의 전문성 및 친절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과 인력부족의 문제들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기에 지속적인 정부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윤희운, 오선경, 이재민(2016)은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을 적용하여 공공도서관의 비중과 중요성, 이용실태와 비이용 이유, 독서프로그램 참여 및 비참여 이유, 도서관 확충(신설) 요망지역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관련 연구, 관계법령, 국민 독서실태조사, 전국문화기반 시설 총람, 대구시민 의식조사, 대구 도시브랜드 시

민익식 조사, 광역시도 및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현황 등과 비교하여 대구시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충실화 및 이용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인호, 차주환(2017)은 천안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설문지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장기적 종합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조사 영역은 도서관 유형 선호도, 도서관 시설 및 공간, 도서관 이용목적, 만족도 및 도서관 인식 등 4영역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교육문화시설로 공공도서관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 대해 일상생활과 친근한 공간으로써 인식하지 않은 천안 시민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위치 및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혜영(2019)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24개 공공도서관의 일반현황과 행정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의 시설, 인력, 장서, 예산 현황을 살펴보고,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 도서관법과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비교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 행정조직의 체계와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 사서직원 충원, 장서 확충, 노인 대상 서비스 강화, 예산 증액, 정책담당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합리적 조정

2004년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 근무제도 실시를 계기로 변화를 맞게 된 국민 생활방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대표적인 공공문화시설인 공공도서관의 야간 연장서비스를 통한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된 주요정책과제로 채택되어,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적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확대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9).

다만,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운영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규 직원 충원과 소요예산의 원활한 지원, 사업성과를 측정하는 적절한 평가방법의 개발과 이를 통한 정확한 실태분석, 야간개관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 등이 지적되었다.

주중 야간개관과 주말개관 등의 연장개관에 대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도서관 내적 요인과 도서관 외적 요인이 있으며, 도서관 외적 요인으로는 국가정책의 양면성과 이용자우선주의 등이 지적되었다. 국가정책의 양면성이란 공공시설의 이용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여가생활을 개선한다는 정책의 이면에는 정작 공공도서관 직원들의 근로복지와는 배치되는 양면성을 의미한다. 특히 사서직은 타 분야의 공무원과는 달리 여성의 비중이 높으며, 이들이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 임신과 출산으로 가정에서 아내로, 엄마로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며,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안팎으로 격무에 시달릴 수

있다. 또한 이용자우선주의란 공공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순종적인 서비스, 즉 공무원은 봉사자, 이용자는 주인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며, 도서관을 둘러싼 다각적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 개인적인 요구를 우선시 하는 이용자우선주의가 생길 수 있다. 도서관 내적 요인으로는 정규인력의 부족과 보상체계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도서관은 “현업기관”으로 권력집행의 행정작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민간기관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관청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우체국, 소방서, 도서관, 의료원 등이다. 대개 대민서비스

의 성격상 정상업무시간을 벗어나서, 야간개관이나 주말개관 등의 초과근무가 상시화 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현업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변형근무가 가능하다.

따라서 도서관 공무원은 도서관이 현업기관으로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문화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소비적인 문화향수가 아니라 스스로 교육하고 다양한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유용한 서비스기관임을 인식하고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야간과 주말의 특근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다.

한편, 해외 도서관의 개관시간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9)를 요약·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해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2009년 기준)

국명	공공도서관 운영 특성	휴관일 및 개관시간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기준 4,000여개 공공도서관 운영(인구 13,500명당 1개관)</li> <li>• 2000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선정책 실시</li> <li>• 중앙관과 분관체제로 운영(중앙관과 분관의 운영시간 다름)</li> <li>• 1개 도시 집중적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관: 주1회 휴관(최근 일요일도 개관 늘어남)</li> <li>- 분관: 주1회, 매주 일요일 또는 주 1회~4회</li> </ul> </li> <li>• 개관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관: 주 50시간 이상 개관</li> <li>- 분관: 최고 40여 시간~최저 20여 시간</li> </ul> </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기준 4,000여개 공공도서관 운영(인구 14,000명당 1개관)</li> <li>• 연면적 6,000㎡이상(대규모)과 이하(중소규모) 도서관으로 구분 22개 도서관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주 2회 휴관(일월/일목)</li> <li>- 중소규모: 주1회, 매주 일요일 또는 주 1회~4회</li> </ul> </li> <li>• 개관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주 35~40시간 미만 개관</li> <li>- 중소규모: 30~40시간 미만 개관</li> </ul> </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기준 16,000여개 공공도서관 운영(인구 14,000명당 1개관)</li> <li>• 중앙관과 분관체제로 운영(중앙관과 분관 및 도시 규모 별 운영시간 다름)</li> <li>• 미국 4개 도시 대상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도시: 주 1회 혹은 월 2회 휴관</li> <li>- 중규모도시: 매주 일요일</li> </ul> </li> <li>• 개관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도시: 주당 개관 시간 긴편임</li> <li>- 중규모도시: 매일 일정함 7~8시간</li> </ul> </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기준 3,000여개 공공도서관 운영(인구 14,500명당 1개관)</li> <li>• 중앙관과 분관체제로 운영(중앙관과 분관의 운영시간 다름)</li> <li>• 동경의 1개 구를 집중적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관: 월 1회 휴관</li> <li>- 분관: 주1회, 매주 월요일 휴관</li> </ul> </li> <li>• 개관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관: 10시~저녁 7시까지 개관</li> <li>- 분관: 9시~저녁 7시까지</li> </ul> </li> </ul>

해외 각국의 휴관일과 개관시간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중앙관과 분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관과 분관의 운영시간이 다소 차이가 났다.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일별 그리고 주별 총 개관시간이 짧고, 비정형화된 개관시간을 운영하였다. 휴관일은 일요일을 포함하여 주 2~3일로 대체로 긴 편인 반면, 미국의 경우, 개관시간이 중앙관과 분관과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길고 정형화된 패턴을 보이며, 휴관일은 대체로 매주 일요일 하루만 휴관하였다. 일본의 경우 개관시간은 미국과 유럽 도서관들보다 길지만 우리나라 도서관보다는 짧으며, 휴관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표 1〉의 현황은 10년 전의 것이라 지금은 다소 운영시간이 변동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표 1〉에 제시된 모든 도서관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2019년 현재 각 나라별로 중앙관과 분관, 규모가 큰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등을 살펴본 결과,<sup>1)</sup> 영국과 미국은 주 총 개관시간은 거의 변동이 없으나 요일별로 개관시간이 늘거나 축소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대체로 일요일은 휴관이다. 영국 셰필드공공도서관 중앙관인 경우 오히려 42시간 이상으로 줄어들었으며, 분관의 경우 대부분 10시에 개관해서 4시에서 6시 전후로 문을 닫는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휴관일 없이 운영되는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대체로 일요일에는 휴관하는 도서관이 많지만, 개관할 경우 오후 1시에서 5시정도까지만 개관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월요일과 공휴일은 대부분 휴관하나 개관을 할 때 중앙관은 월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분관의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혹은 오후 8시까지 개관하는 등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개관시간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큰 도서관인 경우는 월요일이 휴관일이며 일요일 오후에 4-5시간만 문을 열고, 분관은 일요일과 월요일 모두 휴관인 경우가 많으며, 요일별로 개관시간이 다르며, 전반적으로 개관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즉 대체로 해외도서관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휴관일 없이 운영하는 추세이며, 중앙관과 분관 등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규모와 역할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관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지역에 분관이라도 개관시간이 다소 연장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아마도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공공도서관 정책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즉 프랑수아즈 니센(Françoise Nyssen) 문화부 장관은 2017년 8월 10일 프랑스 지역 일간지인 웨스트 프랑스(Ouest-France)지와의 인터뷰

1) 2019년 8월 현재 각국별 조사한 도서관들은 다음과 같다.

- 영국 - 셰필드공공도서관 및 분관, <https://www.sheffield.gov.uk/home/libraries-archives/our-libraries>, [2019. 8. 7.]
- 프랑스 - 마르세유공공도서관(<https://www.bmvr.marseille.fr/>) ; 몽펠리에공공도서관(<https://mediatheques.montpellier3m.fr/>) ; 물링도서관(<https://www.astrolabe-melun.fr/>) ; 리옹도서관(<https://www.bm-lyon.fr/>), [2019. 8. 7.]
- 미국 - 스포캔공공도서관 및 분관, <http://www.spokanelibrary.org/downtown> ; 에크론공공도서관 및 분관, <https://www.akronlibrary.org/> ; 클리브랜드공공도서관 및 분관, <https://cpl.org/>, [2019. 8. 7.]
- 일본 - 세타가야공공도서관 및 분관, [https://libweb.city.setagaya.tokyo.jp/menu\\_libguide.html](https://libweb.city.setagaya.tokyo.jp/menu_libguide.html), [2019. 8. 7.]

에서, '프랑스 전역에는 16,000여개의 도서관이 존재하나 대다수의 개방 시간이 일반 국민들의 근무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밝힌바 있다. 예를 들어, '파리 소재 50개의 공공도서관 중 5개만이 일요일에 개방하고, 전체 개방 시간은 암스테르담이나 코펜하겐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공도서관 개방 시간 확대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개방 연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며, 정부차원에서 관련 예산 증대를 약속하였다. 프랑스의 공공도서관의 저녁시간 및 일요일 개방 정책은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일환으로, '지역 도서관 개방 시간 연장 및 지역민 연대의 장소로서의 도서관' 주제로 전국적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up>2)</sup>

한편, 윤희운(2013)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과 대만, 일본, 한국의 공공도서관기준을 대상으로 최소 개관시간을 분석하고 봉사대상 인구에 기초하여 국내 공공도서관 자료실의 바람직한 주당 최소개관시간 기준을 제안하였

다. 각 국의 최소개관시간은 <표 2>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 인구 구간을 현실에 맞게 다시 구분하여 주당 최소 개관시간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기준안은 <표 3>과 같다(윤희운 2013).

윤희운(2013)의 연구 결과는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이전의 연구이기는 하나 봉사대상 인구구간에 따른 실제 평균개관시간과 개정이 필요한 최소 개관시간을 새로운 인구구간에 맞추어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표 3>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2만명 미만에 봉사하는 소규모 도서관은 자치단체나 도서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관 및 폐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 2.2 주52시간 근무제 및 공공도서관 적용 문제점

### 2.2.1 주52시간 근무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표 2> 각국의 주당 최소 및 최대 개관시간 기준 비교

국가	최소	최대	비고
미국	15	68	Alabama, Colorado, Florida, Illinois, Indiana 등 11개 주
캐나다	15	65	Ontario, Alberta, Nova Scotia
영국	45	60	최소는 대도서관에, 최대는 고정된 서비스 포인트(분관)에 적용됨
프랑스	6	25+	『학교 및 지역도서관 지침』 제21조
호주	6	68	New South Wales, Queensland, Victoria주
중국	56	70	최소는 시·주·현·향·진도서관에, 최대는 시(성)도서관에 해당함
대만	44	-	『公共圖書館設立及營運基準』 제28조
일본	58	73	최소는 분관 등에, 최대는 도도부현립도서관에 적용됨
한국	36	67	최소는 소분관, 최대는 단일도서관·중앙관·대분관에 적용됨

2) 해외문화홍보원, <http://kocis.go.kr/koccc/>, "프랑스 문화부, 공공도서관 개방 시간 연장 결정"(2017.10.19), [2019. 8. 9.]



〈표 3〉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인구 구간별 주당 최소 개관시간 기준(안)

인구구간	실제 평균 개관시간 수	한국도서관협회 권장기준(2003년)	개정안	
			최소 개관시간	산출근거
1만명 미만	45.4	36 (소분관, 2만명~3만명)	45	주중: 4일X9시간 토·일: 9시간
1만~2만명 미만	48.0~52.0		50	주중: 4일X9시간 토·일: 14시간
2만~5만명 미만	54.0~61.0	55 (중분관, 5만명~6만명)	55	주중: 4일X10시간 토·일: 15시간
5만~10만명 미만	66.0~78.0	67 (대분관·단일도서관·중앙관·시스템본부, 8만명~10만명)	60	주중: 4일X11시간 토·일: 16시간
10만~30만명 미만	78.0~103.2		65	주중: 4일X12시간 토·일: 17시간
30만명 이상	104.0~144.0		70	주중: 4일X13시간 토·일: 18시간

김해시립도서관도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인력과 예산 운영에 있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의견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을 많이 하는 한국의 상황(KOSIS 국가통계포털 2017년 기준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OECD))에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삶의 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이에 노동자의 휴식과 삶의 질,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의 단축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 결과 2018년 2월 27일,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표되었고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준에는 일주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뺀 5일로 간주했다.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해 최대 68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일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간주하고 있다. 때문에 개정 후에는 법정근로시간 40시

간에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12시간을 더해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근로기준법([시행 2018.9.1.] [법률 제 15513호, 2018.3.20., 일부개정])이 개정되었지만 모든 사업장이 주 52시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각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다르게 잡았다. 먼저 직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작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상태이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명에서 49명 이하 규모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 공공도서관의 직원은 작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상태다.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러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다.

2.2.2 주52시간 근무제 공공도서관 적용의  
문제점: 김해시립공공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주52시간 적용에 대해 김해시립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주일에 52시간 근무로 제한되면서 현재 김해시립도서관들의 사서 인력으로 도서관 운영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주중 밤 11시, 주말 저녁 6시까지 야간연장 운영을 하게 되면서 사서직 공무원들의 근무 체계에 부득이 변화가 발생되었다. 공무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저녁 당직과 주말 일직 근무까지 포함해 정상근무를 하지만 제한된 사서직 공무원 인력으로 인해 주52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사서직 공무원들은 개정된 주52시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말에 일 때문에 출근하게 되더라도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일까지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매월 마지막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던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안과 기간제 비정규직을 공무원으로 정규직화시켜 공무원들의 제한된 인력에 숨통이 트이도록 하자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1회 휴관하던 것을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겉으로 보기에 사서직 공무원들이 매월 3회의 휴일을 더 갖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계산이며, 월요일이 휴일이 되면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주 5일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며, 사서직 공무원들의 휴일은 일요일과 월요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김해시립도서관

사서직 공무원들의 토요일은 매주 출근해야 하는 요일이 되며, 사서직 공무원들에게 주말이란 개념은 사라지게 된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단순 비교이며, 김해시립도서관들의 사서직 공무원 수가 훨씬 적어 토요일 외 일요일 당직근무나 야간 근무 순번이 너무 자주 돌아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더욱이 시립도서관이 평일 밤 11시까지 야간연장 운영을 하게 되면서 적은 인력으로 주말 근무에 더해 야간에까지 더욱 자주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여성 인력이 많은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가정에서는 자녀나 배우자가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야간 근무가 잦아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 일과 삶의 균형”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를 역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김해시에서는 시립도서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직원들을 2018년 1월부터 정규직인 공무원으로 전환시켰지만 이 방법 또한 제대로 된 문제해결이 아닌 미봉책일 따름이다.

김해시립도서관들의 인력 현황(〈표 6〉 참조)을 보면 6개 김해시립도서관의 사서직 공무원 수는 총 24명이나 이에 비해 정규직화 된 비공무원인 공무원은 79명이다. 인원이 많아진 듯 하지만 이 가운데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직은 29명이다. 사서자격증을 가진 공무직의 숫자가 사서직 공무원의 숫자와 비슷하거나 많은 것인데 이것이 겉으로 볼 때에 도서관 인

력구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2차 FGI 인터뷰 결과, 도서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다. 실제 공무원 운용에 있어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나 사서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이나 하는 일에 차이가 없고, 더욱이 사서직 공무원이 하는 일의 대부분을 이들이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들이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료실을 지키거나 대출 반납 정도로 사서의 일을 돕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정책 집행,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한 대처 등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형태의 도서관 업무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 공무원들은 정해져 있는 시간대에 출근해 자료실을 지키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적인 도서관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들은 사서직 공무원들의 숫자보다 많은 인력임에도 도서관의 실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보았을 때, 도서관에 인력이 많은 듯 보여도 실제적인 도서관 업무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들 인력관리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공무원 위에 공무원?’이라는 신문기사가 날 정도로 역차별 논란과 더불어 사서직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아

시아경제 2018.1.23).

또한 김해시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할 때, 실제 도서관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거나 선발 기준을 정하여 기존의 기간제 직원들을 정규적인 공무원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김해시의 정책에 따라 당시 근무하고 있던 기간제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일괄 정규직화한 것이어서 이러한 인력들이 도서관에서는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을 정규직화하면서 인건비 지출이 고정지출로 책정되어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sup>3)</sup>에 의해, 실제 필요한 정규직 사서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예산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김해시립도서관들의 이러한 인력 문제는 도서관정책 부서인 본청 도서관지원팀에서부터 6개 시립도서관에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김해시립도서관의 인력 불균형의 문제는 도서관 정책 수립과 집행의 어려움, 사서들의 과중한 업무,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 및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므로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합리적·효율적인 인력과 예산 운용을 위해 효율적 도서관 운영은 물론 사서직원의 근로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김해시립도서관은 휴관일과 개관시간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3)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구의 설치 및 인력의 규모, 인건비 배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지자체 소속 도서관에서 사서직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증원이 힘들다는 답변이 되 돌아온다.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에서 사서직 공무원의 정원은 의도적으로 증원이 억제되고 있었고, 편법으로 복수직렬을 이용하여 공공도서관의 고위직에 행정직을 배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곽철완 외 2012).

### 3. 김해시립도서관 운영 현황

#### 3.1 시설 현황

김해시에는 8개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인데, 2018년 현재 김해시 시립도서관 6개소, 교육청 소속 2개관이 있으며, 시설 개요는 <표 4>와 같다.

6개 김해시립도서관 중 규모가 가장 큰 도서관은 장유도서관이며, 이외 6,000m<sup>2</sup>가 넘는 도서관은 진영한빛과 율하도서관이다. 2018년 현재 김해시립도서관은 거점도서관으로 장유, 칠암, 진영한빛 도서관이며, 칠암도서관 분관으로 화정글샘, 장유도서관 분관으로 김해기적과 율하도서관이 있다. 규모면에서 보면 최근에 설립한 율하도서관은 장유도서관의 분관이라기 보다 거점도서관 규모라 할 수 있다.

#### 3.2 주요 지표

김해시립도서관 주요 지표를 경남 평균과 비교해보면 1관당 장서 수, 1관당 방문자수, 1관

당 대출도서 수, 1관당 인구수,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수가 경남 평균에 비교하여 웃도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경남의 평균적인 수치에 비하여 김해시의 도서관수가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서 1인당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봉사대상 인구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관당 대출도서 수 및 방문자수 또한 경남 평균에 비하여 높아 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김해시와 경남의 공공도서관 연차별 지표 비교는 <표 5>와 같다.

#### 3.3 인력 현황

김해시립도서관 인력 현황은 <표 6>과 같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력 합계 기준으로 장유도서관이 39명으로 가장 많으며 칠암도서관 및 화정글샘도서관 31명, 진영한빛도서관 30명, 김해기적의도서관과 김해율하도서관 1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공무원인 칠암, 장유도서관이 13명으로 가장 많으며, 진영한빛도서관

<표 4> 김해시립도서관 시설 개요

운영주체	도서관명	개관년도 (년)	면적 (m <sup>2</sup> )
김해시	칠암도서관	1999	5,869
	장유도서관	2002	6,901
	화정글샘도서관	2008	4,245
	진영한빛도서관	2009	6,568
	김해기적의도서관	2011	1,458
	김해율하도서관	2018	6,638
	소 계		31,679
교육청	김해도서관	1985	6,679
	진영도서관	1990	1,324
	소 계		8,003
	합 계		39,682

출처: 김해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김해시 내부자료(2018. 9. 기준)

〈표 5〉 김해시와 경남의 시립 공공도서관 연차별 지표 비교

구 분	경남			김해시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1관당 장서(인쇄자료)수(권)	97,304	102,872	104,126	142,356	149,543	156,571
1관당 사서(정규직) 수(명)	4.2	4.2	4.4	5.6	6.3	6.6
1관당 방문자수(명)	258,395	214,281	195,860	434,188	425,572	420,983
1관당 대출도서수(권)	124,646	111,371	154,113	200,115	226,902	184,848
1관당 인구 수(명)	51,765	51,906	50,454	75,552	75,632	76,019
지역주민 1인당 장서 수(권)	1.88	1.98	2.06	1.88	1.98	2.06
사서(정규직)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명)	12,416	12,404	11,382	13,561	12,032	11,56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7년 말 기준

〈표 6〉 김해시립도서관 인력 현황

(단위: 명)

운영 주체	도서관명	계	공무원					비공무원(정규직)			비공무원(비정규직)			
			계	사서직	행정직	전산직	기타	계	공무직 (사서)	공무직 (비사서)	기간제 (사서)	기간제 (비사서)	청원 경찰	기타 (대체 인력)
김 해 시	칠암	31	13	5	5	1	2	18	5	9	-	1	3	-
	장유	38	13	7	2	1	2	26	8	11	-	-	3	4
	화정글샘	31	8	3	2	0	3	22	6	6	-	-	3	7
	진영한빛	30	11	4	3	2	2	19	4	10	-	-	3	2
	기적	16	5	2	2	0	1	11	4	5	-	1	1	-
	울하	16	4	3	1	0	0	12	2	9	-	-	-	1
합 계		162	54	24	15	4	10	108	29	50	-	2	13	14

출처: 김해시 내부자료, 2018년 9월 말 기준임(야간근무자 제외)

관 11명, 화정글샘도서관 8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서직 정규직 공무원은 장유(7), 칠암(5), 진영한빛(4), 화정글샘(3), 기적(2), 울하(1) 순으로 나타났다. 6개 도서관에서 사서직 공무원은 24명이며, 기간제 공무직에서 정규직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 79명 중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직은 2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서관에 사서 인원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장에서 언급했듯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라는 지위의 한계로 인해 실제 도서관 핵심 업무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 3.4 도서관 운영시간 현황

김해시립도서관 휴관일은 매월 마지막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이며, 이용시간은 어린이(유아)실, 멀티미디어실은 09:00~18:00, 그 외 자료실은 (주중) 09:00~23:00, (주말) 09:00~18:00, 학습실(장유도서관, 화정글샘도서관)은 08:00~23:00로 운영되고 있다. 기적의 도서관과 울하도서관을 제외하고 도서관의 야간 개관 시 도서관별 4명이 배치되어 야간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근무방법은 공무원이 월~금요일

정상 근무(평일 저녁 당직, 주말 일직 근무), 이외 근로자들은 주중, 주말, 야간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2018년 6월에 개관한 율하도서관의 경우 예산 편성의 미비로 야간 연장 개관을 하지 않고 있다. 율하도서관은 장유도서관의 분관이지만 장유도서관과는 거리가 있고 주변에 새로 신축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고 복합문화시설 내에 있다 보니 이용자가 많은 편이며, 야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2019년부터 야간 연장개관을 다른 도서관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 4. 김해시립도서관 운영 개선을 위한 요구조사

##### 4.1 조사개요

김해시립도서관 조직진단을 위한 요구조사 대상은 도서관 이용자와 김해시립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표 7>과 같이 조사하였다.

설문을 배포한 도서관 직원 인원은 <표 6>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증감에 대해서는 ( )안에 인원을 제시하였다. 이 인원은 야간 근무자가 포함된 인원이며, 율하도서관은 야간연장 개관을 하지 않아 야간 근무자가 없으며, 설문 조사 당시 1명이 병가 중이어서 1명이 오히려 제외되었다.

요구조사에 대한 설문지는 도서관 이용자는 4개 항목, 직원은 4개 항목으로 나누어 <표 8>과 같이 질문내용을 구성하였다. 요구조사의 광의의 목적은 김해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조직과 인력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으며, 협의의 목적은 합리적 개관시간 및 휴관일 조정에 있었다. 설문지 내용은 <표 8>과 같이 구성하였지만, 요구조사 결과 분석은 협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만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기간은 2018년 10월 15일(월)에서 10월 21일(일)까지 일주일간 평일과 주말,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직원과 이용자 군이 다르므로 요일별, 시간대별로 골고루 배포하였다. 설문은 종이설문으로 우편으로 보내고, 회수하였다. 설문 배포 및 회수율은 도서관 이용자 설문은 각 도서관 근무자들의 도움을 받아 요일별, 실별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6개 도서관별로 각 50부

<표 7> 김해시립도서관 설문조사 대상

도서관	조사 대상		
	도서관 이용자	도서관직원	계
칠암도서관	50	36(+5)	86
화정글썬도서관	50	35(+4)	85
장유도서관	50	45(+6)	95
김해기적의도서관	50	18(+2)	68
진영한빛도서관	50	36(+6)	86
율하도서관	50	15(-1)	65
합 계	300	185	485

출처: 김해시 내부자료, 2018년 10월 초 기준임(야간근무자 포함, 율하도서관은 병가 1명 제외).

〈표 8〉 설문 조사 항목 및 내용

구분	설문 항목	
	대항목	소항목
일반시민	일반사항	•성별           •연령 •직업
	도서관 이용	•도서관 이용 경험 유무 •도서관 이용 빈도 •도서관 이용 목적 •자료구입 신청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 •김해통합 책두레서비스 이용 •사서에게 정보요구 요청
	도서관 인식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영향력 •사회필수기관 인식 •지식정보제공에 도움 •공공도서관의 필요성 •공공도서관 수의 부족 •공공도서관 근무 인력의 직종의 다양성 •전문인력(사서직) 인력의 부족
도서관 직원	도서관 이용 및 인식개선	•도서관 야간 이용 경험 유무 •야간 방문 빈도 •야간 이용 시간 정도 •야간 이용 기간 •야간 방문 목적 •야간 연장 방문 지속 의사 •야간 연장 운영 만족도 •야간 연장 운영의 필요성 •휴관일과 야간 연장 개관시간에 대한 생각 •야간연장 개관시간 조정 •휴관일 조정 •공공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발전방안과 기타 의견
	일반사항	•성별           •연령           •신분 •근무경력     •담당업무
	도서관 인식	•필요 장서 보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만족한 서비스 제공 •공공도서관 수의 부족 •공공도서관 전문인력(사서직)의 부족 •전문 사서직과 비전문직의 비율의 적절성
도서관 직원	도서관 이용 및 인식개선	•야간연장개관에 따른 당직근무 정도 •야간연장개관 근무 시간 •이용자의 야간 방문 목적 •야간연장 개관에 대한 만족도 •야간연장개관의 필요성 •야간 연장 방문 지속 의사 •야간 연장 운영 만족도 •야간 연장 운영의 필요성 •휴관일과 야간 연장 개관시간에 대한 생각 •야간연장 개관시간 조정 •휴관일 조정 •공공도서관이 격무부서라는 인식 •휴관일과 야간연장개관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공공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발전방안과 기타 의견

〈표 9〉 김해시립도서관 설문조사 배포 및 회수 현황

도서관	도서관 이용자			도서관 직원		
	배포	회수	회수율(%)	배포	회수	회수율(%)
칠암도서관	50	49	98	36	22	61.1
화정글샘도서관	50	49	98	35	27	77.1
장유도서관	50	41	82	45	25	55.6
김해기적의도서관	50	49	98	18	18	100
진영한빛도서관	50	49	98	36	27	75
울하도서관	50	43	86	15	14	93.3
합 계	300	280	93.3	185	133	71.8

씩 총 300부를 배포하여 280부(93.3%)가 회수되었으며, 직원의 설문은 각 도서관별 모든 직원 185명에게 배포되어 133부(71.8%) 회수되었다. 설문 배포 및 회수 현황은 〈표 9〉와 같다.

#### 4.2 도서관 이용자 대상 요구조사 결과 요약

##### 4.2.1 도서관 근무자에 대한 의견

공공도서관에서 업무하는 인력의 다양한 직종(사서직 공무원, 공무원, 기술직)의 인지 여부는 51%만 알고 있었으며, 사서직 전문인력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인력은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이 35.4%로, 부족하다는 의견 25%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 4.2.2 도서관 이용 및 운영개선

야간 도서관 이용 경험은 50%였으며, 이용빈도는 매일 및 주1~3회가 49%로 야간 이용자 중 50%는 매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에 도서관 이용시간은 1~2시간이 63.8%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 목적은 개인학습(38.2%), 도서대출 및 열람(37.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야간 연장개관에 대해서는 77.3%가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66.7%가 야

간 도서관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도서관별 야간 연장운영에 대해 울하도서관 및 화정글샘도서관의 경우 주말 야간 연장 개관을 요청하는 의견과 장유도서관의 경우 지금보다 한 시간 축소하여 평일 22시까지 개관을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다.

##### 4.2.3 도서관 휴관일 및 야간 연장개관에 대한 의견

현재 도서관의 휴관일 및 야간 연장 개관에 대해 67.9%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더 확대(18.2%)하거나 축소(13.9%)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야간 운영에 불만족인 이유의 대부분은 주말에도 연장 운영을 하지 않아 주말에도 운영하기를 요구하였고, 야간 연장 개관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행대로 23시까지 개관이 47.5%로 가장 많았으며, 휴관일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 66.4%로 높게 나타났다.

##### 4.2.4 도서관 발전 방안 및 자유의견

도서관 사용자들의 자유의견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되었다.



- 1) 개관시간: 학습실을 주말 및 휴일에도 야간 개관을 해 달라는 의견.
- 2) 시설: 환경과 시설을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해달라는 의견이며, 자율 독서동아리 공간을 제공해달라는 의견.
- 3) 자료: 최신자료를 많이 구비해달라는 의견.
- 4)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야간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설해 달라는 의견.
- 5) 직원: 직원의 채용 확대를 통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와 개관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

#### 4.3 도서관 직원 대상 요구조사 결과 요약

##### 4.3.1 사서직 전문인력에 대한 의견

전문인력(사서) 부족에 대해서는 69.2%가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사서직 인력의 충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으며, 사서직 부족에 따른 신규서비스 기획 및 추진, 양질의 도서 수집 및 정리, 정보서비스 등의 업무가 제한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서직과 비사서직의 6:4 배치비율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긍정과 부정이 공히 24.8%로 동일하였고, 보통이라는 의견이 50.4%로 나타나 사서직 배치비율이 비사서직보다 높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 4.3.2 도서관 이용 및 운영개선

주 단위 연장근무에 따른 당직근무는 대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1주일에 야간 연장근무 또한 5시간 이하 18%로 야간 근무에 대한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야간 방문 목적에 대한 의견으로는 문화프로그램 참여 16.8%, 독서활동 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들이 야간 연장운영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62.4%, 보통이 31.6%로 대부분 이용자들은 야간 연장운영에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 4.3.3 휴관일 및 야간 연장운영

야간 연장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직원들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57.1%, 보통 28.6%,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14.3%로 나타나,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휴관일 조정도 현행대로 71.4%가 유지하는 의견을 나타냈으나, 야간 개관 시간 조정은 야간 10시까지 51.9%, 야간9시까지 21.8%, 현행대로 야간11시까지 16.5% 순으로 의견을 보였으며, 22시까지 운영하자는 의견이 5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4.3.4 행정기관과의 업무 격무 인식 정도

타 행정기관과의 업무에 대한 비교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44.4%, 힘들다는 의견이 36.8%로 일부 직원은 업무의 상대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유로는 운영인력 부족과 도서관 업무량 증가, 휴일근무, 야간 연장개관에 따른 당직근무 순으로 애로 요인을 보였다. 1일 인력운영 조정 의견으로는 일반 행정직과 동일하게 평일 8시간 근무하기를 원하는 의견이 69.4%, 현행과 같이 유지하자는 의견이 26.5%, 1일 2교대 4.1% 순으로 나타났다.

휴일 및 야간 근무 애로사항의 정도는 61.7%가 대체로 그렇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이유로는 휴일 및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도 증가, 업무의

공백, 가정생활의 어려움(육아, 애경사 등),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저하 순으로 답변하였다.

서들의 업무 공백과 업무 가중이 심하며,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였다.

#### 4.3.5 도서관 발전 방안 및 자유의견

직원들은 도서관 발전 방안과 자유의견으로 거의 대부분 정규직 사서직원을 채용하여 확대 배치해 달라는 의견이었다. 현재 김해시립도서관은 정규직 사서보다 비전문직과 공무원 및 단기 근로자들이 더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 사

#### 4.4 요구조사 결과분석 요약

김해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도서관 이용자와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0> 김해시립도서관 요구조사 결과분석 요약

항목	도서관 이용자	도서관 직원
도서관 이용 및 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1~2시간이 가장 많으며, 이용목적은 개인학습과 도서대출과 열람이 가장 많음</li> <li>• 주말에도 야간 운영을 요청함</li> <li>• 도서관이 제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서비스 항목은 최신자료 제공,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운영을 희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서직 부족에 따른 도서수집 및 정리, 정보서비스 등의 업무가 제한된다는 의견이며, 정규직 사서를 더 채용할 것을 요구함</li> <li>• 주단위 연장근무에 따른 당직근무는 대체적으로 적으며 1주일에 야간 연장근무 또한 5시간 이하로 야간 근무에 대한 비중은 낮게 나타남</li> <li>• 일부 직원은 도서관 업무가 타 행정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운영인력 부족과 휴일근무, 야간 연장개관에 따른 것으로 보임</li> <li>• 도서관 업무의 격무에 대한 조정 의견으로 일반 행정직과 동일하게 평일 8시간 근무하기를 희망함</li> <li>• 휴일 및 야간 근무 애로사항의 정도는 높은 편이며, 이유로는 휴일 및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도 증가,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꼽아 특수서비스직이라 해도 사서직원의 적절한 근로복지의 조치가 요구됨</li> </ul>
휴관일, 야간 연장 개관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응답자는 현재 도서관의 휴관일과 야간 연장 개관 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함</li> <li>• 대부분 응답자는 야간 연장 개관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도 현행대로 23시까지 운영을 원함</li> <li>• 대부분 응답자는 휴관일 조정에 대해서도 현행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로 하지는 의견이 다수임</li> </ul> <p>※ 따라서 시민 대부분은 휴관일과 야간 개관시간을 현행대로 23시까지 운영하기를 희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들은 휴관일 조정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li> <li>• 야간 개관시간 조정은 22시까지 운영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li> </ul> <p>※ 따라서 직원들은 휴관일은 현행대로 운영하며, 야간 연장개관시간은 23시에서 22시까지로 조정하기를 희망함.</p>

## 5. 김해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운영 개선 방안

### 5.1 국내 벤치마킹 5개 지자체 시립도서관 휴관일 및 개관시간

김해시립도서관 개관시간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로 앞서 국내외 개관시간 기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되어,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운영시간을 도출하는 근거자료로 삼고자 책의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5개 시, 즉 순천시, 수원시, 고양시, 파주시, 군포시 시립도서관 휴관일 및 개관시간을 살펴보려고 한다.

순천시립 8개 도서관의 휴관일은 그림책도서관을 제외하고 매월 첫 번째 월요일만 휴관이고, 개관시간은 자료실과 학습실을 나누어 운영하는데, 어린이실을 오후 6시까지 개관하고, 종합자료실은 야간연장개관을 하여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sup>4)</sup>

수원시립 26개 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또는 1,3주 월요일과 2,4주 월요일로 나누어 휴관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은 주말이 평일보다 짧게 운영되며, 어린이실을 제외한 자료실은 대체로 오전 9시에서 야간 10까지 연장운영하며, 학습실(열람실)은 오전7시에서 야간 1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sup>5)</sup>

고양시립 17개 도서관의 휴관일은 두 파트로 나누어 매월 1,3주 월요일과 2,4주 월요일로 나

누어 휴관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은 주말이 평일보다 짧게 운영되며, 어린이실을 제외한 자료실은 오전 9시에서 야간 10까지 연장운영하며, 학습실(열람실)은 하절기에는 오전7시에서 야간 11시, 동절기에는 오전 8시에서 야간 1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sup>6)</sup>

파주시립 16개 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휴관하는 도서관들과 두 파트로 나누어 매월 1,3,5주 월요일과 2,4주 월요일로 나누어 휴관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은 자료실인 경우 하절기가 동절기보다 1시간 길게 개관하며, 어린이실을 제외한 자료실과 열람실(학습실)을 연장 개관할 경우 모두 오전 9시에서 야간 10까지 운영하고 있다.<sup>7)</sup>

군포시립 6개 도서관의 휴관일은 대야도서관은 법정공휴일, 중앙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휴관하며, 나머지 4개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은 어린이실을 제외한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야간 10시까지 운영하며, 열람실(학습실)은 오전 7시부터 야간 12까지 운영하고 있다.<sup>8)</sup>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 5.2 김해시립도서관 휴관일 및 연장개관 운영의 방향

김해시립도서관 개관시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향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적 토대와 2차례의 포커스그룹 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조사([부록] 참조) 및 벤치마킹한 5개

4)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sc.go.kr/>, [2018. 12. 14.]  
 5) 수원시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 <https://www.suwonlib.go.kr/>, [2018. 12. 14.]  
 6) 고양시도서관센터 홈페이지, <http://www.goyanglib.or.kr/>, [2018. 12. 14.]  
 7) 파주시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paju.go.kr/>, [2018. 12. 14.]  
 8) 군포시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gunpolib.go.kr/>, [2018. 12. 14.]

〈표 11〉 국내 벤치마킹 5개 지자체 공공도서관 휴관일 및 개관시간 운영 현황

도서관명	공공도서관 운영 특성	휴관일 및 개관시간
순천시립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개 시립도서관, 88개 작은도서관 운영</li> <li>• 사서1인당 주민수 11,173명, 직원1인당 주민수 5,701명</li> <li>• 정책조직: 사업소(평생문화센터) - 도서관운영과(운영지원팀, 도서관정책팀, 시정자료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첫째 월요일(그림책 도서관 제외)</li> <li>* 그림책도서관 매주 월요일</li> </ul> </li> <li>• 개관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실: 09:00~22:00(어린이실 18시까지)</li> <li>- 학습실: 07:00~23:00(주말 22시까지)</li> <li>* 그림책도서관: 09:00~18:00</li> </ul> </li> </ul>
수원시립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개 시립도서관, 141개 작은도서관 운영</li> <li>• 사서1인당 주민수 16,474명, 직원1인당 주민수 11,135명</li> <li>• 정책조직: 사업소(도서관사업소) - 도서관정책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별로 매주 월요일(주로 어린이도서관) 또는 1,3주 월요일/2,4주 월요일로 나누어 휴관</li> </ul> </li> <li>• 개관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실: 09:00~22:00(어린이실 18시까지, 주말 17시까지)</li> <li>- 학습실: 07:00~23:00</li> </ul> </li> </ul>
고양시립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개 시립도서관, 88개 작은도서관 운영</li> <li>• 사서1인당 주민수 20,840명, 직원1인당 주민수 9,221명</li> <li>• 정책조직: 사업소(도서관센터) - 덕양구도서관과(정책팀, 시설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주 월요일/2,4주 월요일(두파트로 나누어 휴관)</li> </ul> </li> <li>• 개관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실: 09:00~22:00(어린이실 18시까지, 주말 6시까지, 동절기 기준)(하절기는 동절기보다 1시간 연장 운영)</li> <li>- 학습실: 08:00~23:00(동절기) 07:00~23:00(하절기)</li> </ul> </li> </ul>
파주시립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복합도시, 16개 시립도서관, 17개 작은도서관 운영</li> <li>• 사서1인당 주민수 9,790명, 직원1인당 주민수 7,062명</li> <li>• 정책조직: 본청 문화교육국 - 교육지원과(도서관정책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5주 월요일/2,4주 월요일(두파트로 나누어 휴관)</li> <li>- 매주 금요일 휴관(한울도서관)</li> </ul> </li> <li>• 개관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실: 09:00~22:00(어린이실 18시까지, 동절기 기준)(하절기는 동절기보다 1시간 연장 운영)</li> <li>- 학습실: 08:00~24:00 또는 08:00~22:00</li> </ul> </li> </ul>
군포시립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 시립도서관, 39개 작은도서관 운영</li> <li>• 사서1인당 주민수 9,374명, 직원1인당 주민수 5,113명</li> <li>• 정책조직: 본청 복지문화국 - 중앙도서관(도서관정책팀)</li> <li>※ 독서진흥팀 별도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 금요일: 중앙도서관</li> <li>- 매주 월요일: 4개 도서관</li> <li>- 법정공휴일: 대야도서관</li> </ul> </li> <li>• 개관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실: 09:00~22:00(어린이실 18시까지, 주말 18시까지)</li> <li>- 학습실: 07:00~24:00</li> </ul> </li> </ul>

[기준: 도서관 현황은 홈페이지, 작은도서관 현황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18년 12월 현재)]

※ 자료실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며, 학습실은 독서실 개념임

지역 시립도서관 운영을 바탕으로 다음 6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한다. 현행 운영하고 있는 김해시립도서관 휴관일과 연장개관 시간을 최대한 유지하되, 일률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각 도서관의 규모,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 도서관의 공간적 특성, 이용자의 요구 등을 토대로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즉, 도서관의 역할과 규모에 따라 중앙관, 거점관, 분

관,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휴관일과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둘째, 건물의 구조적 변경을 고려하고, 이용자 행태를 분석하여 이용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가급적 이용자의 동선을 단축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한다.

셋째, 자료열람실과 학습실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도서관 본연의 역할 제고를 위해 도서관에는 학습실을 배제하고 자료열람실 위주로 운

영하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상 학습실 이용자들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학습실을 운영하되, 되도록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좀 더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도서관에서 학습실 운영을 도서관 업무에서 분리하여, 학습실은 도서관에서 운영하지 않거나 위탁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와 요구를 충족시킨다.

넷째, 도서관 전문직인 사서는 자료열람실 연장을 담당하며, 도서관 비전문직은 학습실 연장 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을 한다.

다섯째, 개관시간 운영의 환류평가 실시<sup>9)</sup>를 통한 시설운영과 예산의 효율화를 기한다. 환류평가를 통해 동절기와 하절기 개관시간을 달리하고, 도서관별로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여섯째, 주중 연장개관 및 주말 도서관 운영 인력은 반드시 정규인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 주말 및 야간 연장개관의 취지는 직장인 혹은 야간과 주말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주간 혹은 주중에 실시하는 동일한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야간이나 주말이라도 정규직원의 서비스가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

### 5.3 김해시립도서관별 휴관일 및 연장개관 세부 운영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들 대상 요구조사와 포커스그룹 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국내 5개 벤치마킹 지자체 도서관 운영시간을 참조하여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1안: 현행 김해시립도서관 휴관일과 연장개관 시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휴관일과 개관시간을 조정하고자 한다.
- 제2안: 향후 정규 인력의 충원과 도서관 본연의 역할과 평일 주간과 동일하게 야간과 주말에도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의 규모,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 도서관의 공간적 특성, 이용자의 요구 등을 토대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5.3.1 제1안: 휴관일 및 개관시간 현행 유지, 일부 수정

김해시립도서관 휴관일은 현재는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과 공휴일이지만, 휴관일 제1안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시범적으로 1개 도서관을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월요일은 개관)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1년 정도 시범 운영 후, 평가를 통해 전체 도서관으로 적용 유무를 결정하도록 한다(<표 12> 참조).

김해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운영 제1(안)은 <표 13>과 같다.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기존에 주중 자료실 연장개관 23시까지 하던 것을 주중 22시까지 1시간 단축하며, 주말은

9) 야간 연장 개관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류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 즉 시간대별로 자료 대출수, 자료 이용자수, 단순 열람실 이용자 등으로 구분하여, 동절기와 하절기에 각각 한 달을 설정하여, 이용실적을 면밀히 수집한 후, 현저히 이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대출이용과 자료실 개방, 학습실 개방의 계절별 요일별 폐관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의 제도화 방안이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9).

〈표 12〉 김해시립도서관 휴관일 세부(1안)

도서관명	현행	변경안
	휴관일	
장유도서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포함)	현행과 동일하나 1개 도서관만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포함)
기적의도서관		
울하도서관		
칠암도서관		
화정글샘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표 13〉 김해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세부(1안)

도서관명		현행		변경안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칠암도서관		09시-23시	09시-18시	09시-22시	09시-18시
장유도서관	자료실	09시-23시	09시-18시	09시-22시	09시-18시
	학습실	08시-23시	08시-23시	09시-22시	09시-22시
화정글샘 도서관	자료실	09시-23시	09시-18시	09시-22시	09시-18시
	학습실	09시-23시	09시-23시	09시-22시	09시-22시
진영한빛도서관		09시-23시	09시-18시	09시-22시	09시-18시
기적의도서관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울하도서관		09시-18시	09시-18시	09시-22시	09시-18시

기존과 동일하며 학습실을 갖춘 장유도서관과 화정글샘도서관은 1시간 단축하여 22시까지 개관한다. 기적의 도서관은 현행대로 주중과 주말 공히 18시까지 개관하며, 향후 학습실은 도서관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휴관일과 개관시간 안은 1년 단위 개관시간 환류평가를 통해 개관시간을 조정하며, 또한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5.3.2 제2안: 월 2회 휴관

김해시립도서관 휴관일은 현재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과 공휴일이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향후 주 52시간 이내 근로에 대비

하고, 이용자들에게 최대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면서 직원들의 근로복지를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주 5일(화-토) 근무제-일요일과 월요일 휴무를 최대한 보장하여, 휴무일은 월요일과 일요일로 하고, 김해시를 동서로 구분해 보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 월2회 휴관을 하도록 한다. 도서관마다 돌아가면서 휴관하는 변경 운영 제2안은 〈표 14〉와 같다.

서부권에는 매주 월요일 휴관하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없어 장유와 울하도서관이 월요일을 휴관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며, 동부권에는 교육청 소속 김해도서관은 화정글샘 도서관과 좀 더 인접해 있고, 진영도서관

〈표 14〉 김해시립도서관 휴관일 세부(2안)

도서관명		변경안	
		휴관 주	휴관 요일
서부권	장유도서관	1·3 주	월요일
	기적의도서관		일요일
	울하도서관		월요일
동부권	칠암도서관	2·4 주	월요일
	화정글샘도서관		일요일
	진영한빛도서관		일요일

관은 진영한빛도서관과 인접해 있어 월요일을 피하여 일요일을 휴관일로 한다. 따라서 서부권과 동부권 내에서 도서관이 휴관을 하더라도 좀 더 가까이 있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한다.

김해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운영(2안)은 〈표 15〉와 같다.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기존에 주중 자료실 연장개관 23시까지 하던 것을 주중에는 21시까지 운영하면서, 야간에 도서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배려하도록 하고, 주말에는 모두 기존대로 18시까지 운영하도록 한다. 기적의 도서관은 현행대로 주중과 주말 공히 18시까지 개관한다. 학습실은 제1안처럼 1시간 단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표 15〉는 안이며, 1년 단위 개관시간 환류 평가를 통해 개관시간을 조정하며, 또한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학습실은 도서관 혁신적인 서비스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6. 결론 및 제언

김해시립도서관의 운영 개선을 위해 김해시립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도서관 이용자와 도서관 직원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문헌조사 및 도서관별 실사와 면담과

〈표 15〉 김해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세부(2안)

도서관명		현행		변경안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칠암도서관		09시-23시	09시-18시	09시-21시	09시-18시
장유도서관	자료실	09시-23시	09시-18시	09시-21시	09시-18시
	학습실	08시-23시	08시-23시	09시-22시	09시-18시
화정글샘도서관	자료실	09시-23시	09시-18시	09시-21시	09시-18시
	학습실	09시-23시	09시-23시	09시-22시	09시-18시
진영한빛도서관		09시-23시	09시-18시	09시-21시	09시-18시
기적의도서관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울하도서관		09시-18시	09시-18시	09시-21시	09시-18시

FGI 의견을 토대로 김해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 휴관일과 개관시간 운영에 대한 요구 조사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 이용자는 기존대로 휴관일을 운영하고 23시까지 연장개관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직원들은 휴관일은 그대로 운영하고, 개관시간은 23시에서 22시까지 조정되기를 희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국내의 도서관 사례를 토대로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의 요구조사도 반영하고 2차례에 걸친 FGI 조사를 반영하여 휴관일과 개관시간에 대해 2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제1안은 휴관일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시범적으로 1개 도서관을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월요일은 개관)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1년 정도 시범 운영 후, 평가를 통해 전체 도서관으로 적용 유무를 결정하고, 개관시간은 기존에 주중 자료실 연장개관 23시까지 하던 것을 주중 22시까지 1시간 단축하며, 주말은 기존과 동일하며 학습실을 갖춘 장유도서관과 화정글샘도서관은 1시간 단축하여 22시까지 개관하는 방안이며, 제2안은 김해시를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 월 2회 휴관하고, 개관시간은 자료실은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1시까지 운영하고 학습실은 1시간 단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향후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환류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시립도서관을 같은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개관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별로 이용자들의 이용빈도를 근거하여 개관시간을 정하며, 무엇보다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관 직원들의 근로복지 또한 고려하여야겠다.

2000년대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낡은 공공도서관의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침체되었던 도서관의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도서관 이용자를 보다 많이 확보하게 되었다. 이런 반증으로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2017년 6월 15일 프랑스 도서관사서협회 회의 연설에서, '프랑스의 뛰어난 공공도서관 및 미디어 자료실 네트워크, 도서관 이용률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문화 사막화를 방지하고 프랑스의 문화적 재도약을 위해 도서관은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역설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부에서 일상생활의 필수 인프라로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플랫폼으로 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 및 건립과 돌봄플랫폼으로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필수 인프라로서 인식되고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 염려되는 것은 시설이 늘어나고, 개관시간이 연장되는데 따른 관리 및 서비스 인력의 수급이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오픈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하듯이 도서관 서비스의 질은 전문 사서의 질을 넘지 못한다. 도서관 증설에 따른 전문 사서의 배치도 증원되어야 하며, 일과 삶의 균형의 측면에서 그들의 근로시간도 법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실질적인 도서관 정책이 시민과 도서관 직원 모두의 일상생활에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박동철. 2005. 공공도서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대응 전략에 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1): 153-180.
- [2] 박철완 외. 2012.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서 공공도서관 사서직 인력에 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211-230.
- [3]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9.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4]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합동. 201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 [5] 박윤정. 2013.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6] 윤희윤. 2013. 국내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기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1): 49-71.
- [7] 윤희윤, 오선경, 이재민. 2016. 대구 시민의 공공도서관 인식 조사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99-124.
- [8] 윤혜영. 2019.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운영현황과 발전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2): 69-90.
- [9] 장덕현, 강은영. 2012. 부산시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논총』, 30: 201-223.
- [10] 장인호, 차주환. 2017. 공공도서관에 대한 천안 시민의 인식 조사 연구. 『인문사회 21』, 8(2): 313-332.
- [11] 차성중, 김수경. 2019. 공공도서관의 조직진단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조직모델 설계 연구: 김해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125-155.
- [12] 한상일 외. 2008.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품질과 그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295-311.
- [13] ‘공무원 위에 공무원?’...역차별 논란. 2018. 『아시아경제』. 1월 23일.
- [14] KOSIS 국가통계포털. [online] [cited 2018. 12. 14.] <<http://kosis.kr/>>
- [15] 고양시도서관센터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8. 12. 14.] <<http://www.goyanglib.or.kr/>>
- [16]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online] [cited 2018. 9. 28.] <<https://www.libsta.go.kr/>>
- [17] 군포시도서관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8. 12. 14.] <<https://www.gunpolib.go.kr/>>
- [18] 김해시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8. 8. 14.] <[www.gimhae.go.kr](http://www.gimhae.go.kr)>
- [19] 김해통합도서관. [online] [cited 2018. 10. 15.] <<http://lib.gimhae.go.kr/main.web>>
- [20]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8. 12. 14.] <<https://library.sc.go.kr/>>
- [21] 수원시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8. 12. 14.] <<https://www.suwonlib.go.kr/>>

- [22] 파주시도서관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8. 12. 14.] <<https://lib.paju.go.kr/>>  
[23]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9. 8. 7.] <<http://kocis.go.kr/koccc/>>  
[24] 그 외 기타 김해시 내부자료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ack, Dong-Chul. 2005.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Implementing 40 Working - hours Each Week at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6(1): 153-180.
- [2] Kwack, Chul-Wan et al. 2012. "A Study of the Librarian Personnel for Public Libraries on the Lump-sum Personnel Expenditure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3): 211-230.
- [3]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y Research Institute. 2009. *A Study on the Reasonable Management Plan of Public Library Opening Hour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5] Park, Yun-Jeong. 2013. *A Study on the Users' Perception of 'Public Library Opening Hours Extension'*. M.A.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 [6] Yoon, Hee-Yoon. 2013.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Public Library Opening Hours in Foreign Countries and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1): 49-71.
- [7] Yoon, Hee-Yoon, Oh, Seon-Kyung and Lee, Jaemin. 2016. "A Survey of Citizens Perceptions on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99-124.
- [8] Yoon, Hye-Young. 2019.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for Public Librari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2): 69-90.
- [9] Chang, Durk Hyun and Kang, Eun Yeong. 2012. "Citizen Perceptions and Demands on Public Libraries in Busan." *The Journal of Humanities(Kyungsung University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30: 201-223.
- [11] Cha, Sung-Jong and Kim, Soo-Kyoung. 2019. "A Study on Organizational Model Design for Organization Diagnosis and Operation Improvement of Public Libraries: The Case of Gimhae Publ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1):

- 125-155.
- [12] Han, Sangil et al. 2008.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Service Quality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Its Effec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1): 295-311.
- [14] KOSIS National Statistics Portal. [online] [cited 2018. 12. 14.] <<http://kosis.kr/>>
- [15] Goyang City Library Center Homepage. [online] [cited 2018. 12. 14.] <<http://www.goyanglib.or.kr/>>
- [16]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online] [cited 2018. 9. 28.] <<https://www.libsta.go.kr/>>
- [17] Gunpo City Library Homepage. [online] [cited 2018. 12. 14.] <<https://www.gunpolib.go.kr/>>
- [18] Gimhae City Homepage. [online] [cited 2018. 8. 14.] <[www.gimhae.go.kr](http://www.gimhae.go.kr/)>
- [19] Gimhae Integrated Library. [online] [cited 2018. 10. 15.] <<http://lib.gimhae.go.kr/main.web>>
- [20] Suncheon City Library Homepage. [online] [cited 2018. 12. 14.] <<https://library.sc.go.kr/>>
- [21] Suwon City Library Office Homepage. [online] [cited 2018. 12. 14.] <<https://www.suwonlib.go.kr/>>
- [22] Paju City Library Homepage. [online] [cited 2018. 12. 14.] <<https://lib.paju.go.kr/>>
- [23] Overseas Cultural Promotion Agency homepage. [online] [cited 2019. 8. 7.] <<http://kocis.go.kr/kocc/>>

## [부록]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 ■ FGI 1. 김해시립도서관 휴관일 및 연장개관 시간

- 대상: 총 11명(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과장, 도서관지원팀 2명, 칠암도서관 2명, 장유도서관 4명, 연구진 1명)
- 개최 일시: 2018. 10. 19. (금) 10:00~12:00
- 장소: 김해시 인재육성사업소장실
- 면담 내용: 야간 운영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 정책부서 및 인력 운영
- 면담 결과 요약

〈표 1〉 FGI 1차 조사 면담 결과 요약

구분	내용
사서	1) 현행대로 휴관일 운영(4교대, 월1회 주말 근무) 2) 연장개관은 23시 → 22시로 조정 3) 현재 율하도서관은 야간 연장 개관 안함(인력 충원 ×), 내년도 연장개관을 위한 인력 예산 책정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사업 예산 확인 필요
도서관 조직 정책부서	1) 시민 편의도 직원의 근로복지를 헤치지 않는 선에서 운영(현 월1회 주말근무 유지) - 유럽의 사례처럼 일요일 휴관도 필요하다면 가능 2) 유사 타시도의 사례 도입(군포, 부천 등) 3) 정규직 증원, 건물구조 변경 등 적극적 대처 4) 도서관 정책부서 시청 내 도서관지원팀으로 위치, 거점도서관(장유도서관)에서 3개 도서관(분관 포함 6개 도서관) 운영을 총괄, 역할 분담에 따른 이원화 고려
연구진	1) 자료실과 학습실(열람실) 분리 운영 → 향후 건물구조 변경 및 공간 배치 2) 야간 연장 개관 시간 조정: 최대 야간 10시까지 3) 휴관일: 6개 도서관 2개 조로 나누어 운영(1,3주 / 2,4주) 4) 개관시간: 도서관 시설 및 인력 규모별 자료실과 열람실 운영시간 및 인력 배치 5) 정규직 증원 6) 도서관 정책부서(현행대로 인재육성사업소 내 위치)와 도서관운영 총괄(거점도서관: 장유도서관) 이원화 및 역할 분담

■ FGI 2. 김해시립도서관 조직 및 인력구조

- 대상: 총 8명(칠암도서관 등 김해시 시립도서관 사서 6명, 김해시 총무과 등 조직 전문가 2명)
- 개최 일시: 2018. 11. 8. (목) 16:30~18:00
- 장소: 김해시 인재육성지원과 도서관지원팀 회의실
- 조사 내용: 김해시 공공도서관 조직 및 기능, 도서관 정책부서 조직에 대한 현황 및 인식, 김해시의 도서관 조직 및 인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요구사항, 김해시 도서관 조직 및 인력의 재설계 추진 방향
- 조사 결과: 개관시간과 인력 재설계 관련 조사 내용만 제시

<표 2> FGI 2차 조사 면담 결과 요약

Q. 현재 김해시 도서관 조직 및 인력구조(도서관 정책부서 포함) 현황 중 가장 큰 애로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이유	
면담 내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장을 포함한 일선 시립도서관 관리자급에 사서직이 거의 없다. 최소한 열람팀장이라도 전문 인력인 사서직이 담당해야지 도서관 간에 소통이나 도서관업무의 방향 설정이 가능한데, 거의 대다수 관리자가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이 아프거나 무기력한 분들 또는 퇴직을 얼마 앞둔 인력들이 도서관에 쉬러오는 경우도 있다.(패널 3)</li> <li>• 작년 연말에 기간제 인원의 공무직화가 대거 이루어져 현재 어떤 시립도서관은 정규직 직원보다 공무직이 더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공무직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안, 결재권의 제한 등으로 대출·반납 등 단순 업무 수행에 머물고 있어 도서관 업무를 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패널 4)</li> <li>• 현재 김해시 일선도서관 조직의 주무팀은 도서관서비스의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행정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조직에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열람팀)가 주무팀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도서관 행정 및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패널 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선 시립도서관 관리자급에 사서직 배치 필요</li> <li>- 공무직 인원이 늘어났지만,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 존재</li> <li>- 도서관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열람팀이 주무팀 담당 필요</li> </ul>

Q. 김해시가 향후 지향해 나가야 할 도서관 조직 및 인력 재설계의 추진 방향(개선방향)	
면담 내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김해시립도서관의 정책조직으로 인재육성지원과 하위의 '도서관지원팀'이 존재하지만, 시립도서관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지원팀이 독서진흥 업무, 작은도서관 지원 업무 등 자기 사업을 수행하는데 바쁜 상황이라 공공도서관별 조정 업무를 수행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대표도서관 등 김해시립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 및 인원이 절실한 실정이다.(패널 8)</li> <li>• 김해시립도서관의 모든 일선 도서관이 23시까지 야간연장개관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다. 도서관별로 야간연장, 휴관일 조정이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패널 5)</li> <li>• 현재 타 지자체의 도서관정책체계의 사례처럼, 김해시의 도서관 정책조직은 지자체 본청 산하의 조직으로, 도서관 운영조직은 독립된 사업소 단위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패널 2)</li> <li>• 김해시립도서관의 조직 진단을 통한 공공도서관별 적정 인력 재산출은 도서관법시행령 등에 근거한 법·제도적 분석보다는 벤치마킹 대상 타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적정 인원수 도출이 바람직하다.(패널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해시립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 필요</li> <li>- 도서관별로 야간연장, 휴관일 조정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필요</li> <li>- 김해시의 도서관 정책조직은 본청 산하의 조직으로, 운영조직은 독립된 사업소 단위로 운영 필요</li> <li>- 타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공공도서관별 적정인원 산출 필요</li> </ul>

※ 참조: 차성중, 김수경, 2019. 공공도서관의 조직진단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조직모델 설계 연구: 김해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134-137.

